목회기고1

# 통합과 화합의 지도자 압돈(삿 12:13-15)

"사사(士師)는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하여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평시에는 각 지파 별 또는 지역 별로 백성을 다스렸으며, 전시에는 군대의 지휘관으로 활동하였습니다. 12명의 사사 중, '옷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등 6명은 행적(行跡)이 길고 상세하여 대사사로 분류되고, 활동기록이 비교적 적은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등 6명은 소사사로 분류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사들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에훗은 왼손잡이로 오른손에 장애가 있고(삿 3:15), 삼갈은 양치는 목동이고(삿 3:31), 드보라는 여성이고(삿 4:4), 기드온은 허약했고(삿 6:15), 입다는 기생의 자식이고 (삿 11:1-3), 삼손은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했던 사람입니다(삿 14:1-3).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 위기마다 백성을 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백성을 통합시킨 화합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소사사로 분류되는 압돈은 마지막 사사로 이스라엘을 8년간 다스렸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치와 호색의 사사로 아내와 첩을 많이 두어 아들과 손자만 무려 70명이었습니다.(삿 12:14) 이는 그가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보다 사적인 일 곧 자녀와 가문의 일에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화합과 통합의 지도자입니다. 압돈이 아내를 많이 둔 것은 12지파를 화합시켜 나라를 통합하려는 고육책(苦肉策)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지파가 하나가 되었지만, 평화로울 때는 지파마다 목소리가 커지고 자신의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압돈은 이런 현상을 타파하고 지파 간 분열을 막고자 지파마다 아내를 두었고 자녀들을 타 지파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손자에게 각각 나귀를 준 것은 각 성들을 돌아보라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즉 아들과 손자들을 활용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는 압돈이 아들은 물론이고 손자들까지도 영성(Spirituality)과 더불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 곧 전문성(Expertise)도 키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마 10:16) 하셨습니다. 이는 비둘기처럼 순결한 영성과 더불어 뱀같이 지혜로운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압돈의 매장지 비라돈은 아말렉의 산지(山地)입니다.(삿 12:15) 아말렉은 사사건건 이스라엘을 대적한 원수입니다. 그런데 사사 압돈은 진멸하여야 할 적, 아말렉과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뛰어난 외교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가 사사로 있는 동안에 우상을 섬겼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는 아말렉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넘어 그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심어준 것입니다. 곧 믿음 안에서 통합하고 화합한 것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통합(United)은 하나로 모아 합치는 것이고 화합(Harmony)은 서로 마음이나 뜻을 모아 화목하게 지낸다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 그대로 실행한 지도자입니다.

또한 압돈의 이름의 뜻은 '아바드' 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로 '일하다' '봉사하다' 와 더불어 '예속시키다' 는 뜻입니다. 그는 어원대로 사사로서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봉사를 했으며 또한 아말렉을 하나님의 백성 안에 예속시킨 지도자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1천만 성도들은 진영을 떠나 새 대통령이 사사 압돈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통합시키는 화합의 지도자가 되도록 전심(全心)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군왕(君王)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시편 2:10-11).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딤전 2:1-2).

최부수 목사
고천교회 협동

목회기고2

# 최고의 사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요일 4:10).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 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사랑은 무조건적 아가페의 사랑, 완전한 사랑이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겸손, 희생, 용서이다. 우리는 이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다. 예수님의 겸손, 희생, 십자가 죽음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으로, 속죄받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다.

나는 어린 시절, 안양시 비산동에 살았다. 비산동에 커다란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다리는 안양 중심가와 내가 다니던 교회, 학교 등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데 그 비산대교는 여름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자주 범람하곤 했다. 그러면 일단 휴교령이 내려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어 나는 기분이 좋았다. 홍수 때면 나를 포함해 많은 사람이 우산을 쓰고 범람하는 다리 부근에 모여들곤 했다. 이유는 다리가 범람하면 개천 위에서 참외, 수박 등 농산물들이 황토물 위로 둥둥 떠내려오곤 했기 때문이다. 떠내려오는 개, 돼지도 봤다. 문득 피해를 본 농부와 가족들 생각에 마음이 아프기도 했다. 그리고 다리 양쪽에는 경찰들이 배치되어 사람들의 통행 금지와 안전관리를 했다. 가끔 생각나는 특별한 추억이다.

비산동 다리는 2개의 길에서 시작되었다. 하나는 넓은 길, 다른 하나는 좁은 길이었다. 그런데 좁은 길에서 다리가 시작되는 지점에 작은 쌀가게가 하나 있었다. 가게는 쌀과 보리, 수수, 콩, 팥 등 잡곡도 팔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가게는 홍수 때마다 침수되었다. 주인은 몇 번이나 쌀과 곡식을 씻어 말린 후, 다시 팔았다. 그래서 침수된 어느 날, 나는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아주머니! 이렇게 홍수 때문에, 힘드신데 왜 이사하지 않으세요?" 내게 아주머니가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다음 해에도 쌀과 잡곡을 씻고 계셨다. 그분은 왜, 거기서 계속 장사하셨을까? 돈 때문인가? 이전에 있었던 일을 잊으신 건가? 왜, 침수되지 않는 안전한 곳으로 떠나지 않으셨을까? 지금도 의문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범람하는 죄악의 물결 속에서 아무 저항 없이 그냥 떠내려간다. 거짓과 위선, 부정과 부패, 불법과 탐욕으로 가득한 더러운 바벨탑을 열심히 쌓아 올린다. 그래서 공정과 상식, 도덕과 윤리가 땅바닥에 떨어져 뒹굴어 다닌다. 어떤 사람은 자기 힘과 권위로 멋대로 살고 어떤 사람은 지혜가 없어 정처 없이 흔들리며 산다. 어떤 이는 죄를 떠나고 어떤 이는 그냥 죄 가운데 눌러앉는다. 공의의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때에 죄를 심판하시리라 믿는다. 우리는 불법과 죄를 신속하게 떠나야 한다. 영원히 떠나야 한다.

성경은 말세에 불법이 성행하므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는다고 했다. 정말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사랑을 외면하며 멀리 떠난다. 서로 불신하며 거짓된 사랑을 속삭인다. 시기하고 질투하며 싸우다가 너무나 쉽게 헤어진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불완전하다. 인간의 사랑은 반쪽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다. 겸손하고 희생하며 용서하는 사랑이, 참사랑이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사랑' , '하나님의 사랑' 이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더욱 겸손해야 한다. 타인을 위해 우리 자신을 희생하며 용서해야 한다. 우리는 겸손히 희생하며 용서하지 못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한다. 나부터 부끄럽다. 하나님께 죄송하다.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는 '최고의 사랑' 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실천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의 제일은 사랑이라"(고전 13:13).

장선희 목사
새빛교회

신앙묵상

# 좋은 친구

임세빈 목사
참빛누리교회 원로

"수 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새 무리를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막 2:1~4)

가버나움에 중풍 병으로 고생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고독한 예외자 였습니다.
어느 날, 가버나움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구름떼같이 몰려왔습니다만,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중풍병자는 긴 한숨만 몰아쉴 뿐,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불행 중 다행히도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들것에 실려 예수께 갈 수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께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가로막고 길을 내 주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결단을 내려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의 들것을 줄에 매어 달아 내렸습니다.
친구를 위한 희생적 사랑과 믿음은 예수님을 감동 시켰습니다.
친구에게 새로운 삶을 만들어준 네 친구들, 정말 부럽습니다.

어떤 친구는 평생 부담만 주는 친구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언제나 도움을 주고 사랑을 주는 고마운 친구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기 일처럼 도움 주는 친구도 있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친구들에게 어떤 친구로 살아왔을 것이라 생각합니까?
할 수 있으면 중풍 병자처럼 예수님을 만나야할 친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친구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 제16회 한국성결교회연합회 출범

대표회장 홍사진 목사 예성 총회장 | 공동회장 안성우 목사 기성 총회장 | 공동회장 최형영 목사 나사렛 감독 | 권순달 목사 예성 총무 | 문창국 목사 기성 총무 | 최 철 목사 나성 총무

대 표 회 장 홍사진 목사(예성 총회장)
공 동 회 장 안성우 목사(기성 총회장) 최형영 목사(나사렛 감독)
공동부회장 이종만 목사 이기용 목사 이관호 목사 이광섭 장로 안보욱 장로 왕준복 장로
서 기 이규헌 목사
협 동 서 기 전승환 목사 허상범 목사 김요한 목사 홍지명 목사 이용주 목사 정덕교 목사
회 계 한정수 장로
공 동 회 계 정 헌 장로 조성환 목사 김승모 장로 이철직 목사 한성희 장로
간 사 권순달 목사 문창국 목사 최 철 목사
자 문 위 원 김만수 목사 이 천 장로 류승동 목사 노성배 장로 윤문기 목사 장순필 장로

가. 신학분과
예성 : 김상식 목사 이은성 교수 오현철 교수 김영택 교수 박정수 교수
기성 : 이명관 목사 한기덕 목사 한기채 목사 황덕형 총장 윤철원 교수
나성 : 김경수 총장 정무성 교수 최두현 교수 류욱렬 교수 이필은 교수

다. 해외선교분과
예성 : 라건국 목사 강명국 목사 손영삼 목사 박경순 목사 한종우 목사
기성 : 김학섭 목사 이용구 장로 김형배 목사 이봉남 장로 송재홍 목사
나성 : 박근식 목사 신승근 목사 정두영 목사 정대성 목사 김은석 목사

마. 사회복지분과
예성 : 김병천 목사 이정소 목사 임정문 목사 정기복 목사 이순영 목사
기성 : 박명묵 목사 서현철 목사 홍신종 장로 이재동 장로
나성 : 윤병성 목사 조상연 목사 이계상 목사 서재구 목사 정경화 목사

사. 평신도분과
예성 : 차천용 장로 나윤찬 장로 박수남 장로 강신배 장로 정현숙 권사 이혜경 권사 황명옥 장로 백옥현 권사 임선옥 권사 강유순 권사
기성 : 윤수현 목사 김석환 장로 민태경 장로 장경아 권사 피상학 장로 김명자 권사
나성 : 이길환 장로 강규만 장로 정종열 장로 이상천 장로 도명락 장로 장세란 권사 권미애 권사 최혜경 권사 최정예 권사 박은정 집사

자. 문화체육분과
예성 : 김성은 목사 이찬영 목사 황규정 목사 유 신 목사 박헌재 목사
기성 : 백병돈 목사 이춘오 목사 신인호 목사 박성균 목사
나성 : 최영환 목사 황성은 목사 오경근 목사 윤상현 목사 조태희 목사

차. 사회책임분과
예성 : 윤영훈 교수 신상록 목사
기성 : 지형은 목사 이기철 목사 권영기 목사 오성욱 교수
나성 : 윤예숙 목사 서메녹 목사

나. 교육분과
예성 : 노윤식 목사 문제영 목사 이천의 목사 류형창 목사 임현교 목사
기성 : 장헌익 목사 이성준 목사 임채형 목사 조종환 목사 김진성 장로
나성 : 신 유 목사 박은태 목사 황창선 목사 임이량 목사 공인순 목사

라. 국내선교분과
예성 : 이충동 목사 위성섭 목사 최윤영 목사 임시영 목사 윤성철 목사
기성 : 신용수 목사 도강록 목사 김동구 목사 김재성 목사 김승범 목사
나성 : 최영수 목사 이순목 목사 김영철 목사 김기태 목사 김선자 목사

바. 부흥분과
예성 : 고신원 목사 임태진 목사 김신호 목사 이상복 목사 김영국 목사
기성 : 정순출 목사 이일주 목사 이민재 목사 신학철 목사
나성 : 백석현 목사 이창환 목사 김상범 목사 성권상 목사 조군선 목사

아. 홍보출판분과
예성 : 김성철 목사 신동선 목사 염두선 목사 김종현 장로 김연진 목사
기성 : 고석헌 목사 이덕한 목사 홍재오 장로 황승경 목사 송우진 목사
나성 : 김요한 목사 김은엽 목사 이풍우 목사 이춘선 목사 김보람 목사

카. 이단사이비분과
예성 : 한익상 목사 성승식 목사 남기형 목사
기성 : 한선호 목사 장덕수 장로 강형규 목사
나성 : 김현호 목사 황성아 목사

한국성결교회연합회 |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홍사진 |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안성우 |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감독 최형영